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홍보마케팅팀

Tel 041-750-1673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Vol. 11
(2022. 12)



금산이 뿌리입니다

금산이 뿌리입니다는 1,500년전 금산인삼의 기원과 대한민국 고려인삼의 70%가 유통되는 금산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산이 뿌리입니다는 인삼관련 소식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소식지입니다.



“고려인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금산, 인삼 수도로 선포하겠다”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박범인 금산군수

충남 금산군은 ‘인삼의 고장’이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70~80% 정도가 금산에서 유통된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금산인삼 축제는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인삼 제품 수출 상담회도 성황을 이루면서 산업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박범인(63·사진) 충남 금산군수는 8일 본지 인터뷰에서 “고려인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 금산을 인삼의 수도로 선포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금산인삼축제의 성과는?

“지난 9월 열린 제40회 금산인삼축제에 103만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축제와 함께 열린 국제인삼교역전에는 20국 35개 업체가 참석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도 거뒀다. 전국에서 열리는 인삼축제의 원조이자,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인삼 소비가 줄면서 금산 인삼 산업도 위기다.

“인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2000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나온 인삼 궁중요리처럼 말이다. 약재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젊은 층이 소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애쓸 생각이다. 또 내년 금산인삼조합 설립 100주년을 맞아 금산이 세계 인삼의 수도임을 선포하겠다. 이와 연계해 고려인삼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다. 세계인에게 금산 인삼을 알리기 위해 5년마다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열겠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주거와 교육 분야 지원 정책에도 힘을 쏟겠다. 현재 금산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는 대안학교 4개가 있다. 정규학습 과정과 다른 교육환경을 경험하려는 학생들이 금산을 찾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고품격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찾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현재 있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추가로 만들도록 교육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인삼 작물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달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완공했다. 농민이 농산물을 재배, 수확만 하면 보관이나 포장, 유통은 이곳에서 전담한다. 갯잎 등 280종의 농산물을 전담 유통할 계획이다. 2026년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제30회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 GAP인증 활용 농산물 안전성 가치 부여 등 기여



<사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제30회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 기념사진(왼쪽부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기태 GAP인증팀장, 금산군청 인삼약초과 서은영 주무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GAP인증팀 차유상 심사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2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30회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에서 지원기관 부문 농어촌발전상(훈격 충남도지사)을 수상했다.

이 상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땀 흘려온 일꾼을 발굴해 시상하는 도내 농어업 분야 최고 영예의 상이다.

진흥원은 GAP인증을 활용한 농가 조직화 및 인삼, 약초, 깻잎 유통 활성화를 통해 금산 농산물의 안전성 가치 부여에 기여했으며 GAP인증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GAP인증제도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GAP인증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을 받았다”며 “금산 GAP인삼이 세계 표준이 돼 인삼 종주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남도 농어촌발전상은 작목, 시책, 지원기관 등 3개 수상 분야에 총 12개 개인 및 기관이 상을 받았다.

[금산군]

신 기술 조기실용화로 기업경쟁력 향상 (재)인삼약초산업진흥원, 보유기술 및 사업화 전수설명회 성료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12월 2일, 지역식품 및 의약품제조업체 30여 기업과 함께 기관 보유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지재권 이전과 제품화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4월의 1차에 이은 설명회로, 지재권(등록특허)과 기관 보유 현장기술노하우 3건에 대한 기술마케팅 요소로 활용 가능한 노하우가 소개되었다.

소개된 특허기술은 최근 급속히 관심을 받고 있는 호흡기관련 질환의 예방 및 개선과 관련한 기술과 함께 중국과 국내시장에서 성장세에 있는 흑삼의 독창적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소재제조기술 3건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기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향후 기술이전 협약을 위한 공개 상담이 이루어졌다.

진흥원은 소개된 기술과 함께 지역식의약 제조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사업화기술의 공동개발전략과 협력방향, 기업의 현장애로해소를 위한 정보를 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노하우를 참여기업에게 공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진흥원에서는 기술이전 및 전수 조건과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의 적합성, 사업화 의지 등을 우선 검토항목으로 설정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협약에 이르게 된다.

진흥원은 설립 이후 개발 특허 78건 중 보호기술을 제외한 44건(67%)을 21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높은 기술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담당자는 ‘공개 기술은 제품다양성과 품위 향상에 유용해, 기술마케팅 시장에서 연구데이터가 갖추어진 제품으로 인식되어 가격경쟁력 확보에 매우 유용하다’며 기술설명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금산군, 2022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박범인 금산군수 협의회장 선출

.19.(월) 11:00

시군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인삼협회
,  영주시



금산군은 지난 19일 금성면 GCC금산웨딩컨벤션에서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 및 인삼 산업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임원 선정 결과 박범인 금산군수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부회장에 이재영 증평군수, 전춘성 진안군수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고려인삼시군협의회는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으로 기초자치단체간 정보교류 및 인삼시장 변화 상호 협력을 위해 국내 인삼주산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단체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역은 충남 금산·서산·부여, 인천 강화, 경기 파주·이천·안성·김포·포천, 강원 홍천, 충북 음성·증평, 전북 진안·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주 등이다.

박범인 군수는 “금산군은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금산인삼농법의 유산적 가치를 보유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삼이 지닌 가치를 회복시키고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전국 인삼 주산지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산군]

생명·의·교향·금산·세계로·미래로!

제41회 금산인삼축제,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연휴 일정, 인삼수확시기 등 고려

제20회 금산축제관광재단 이사회

2022. 12. 15.(목) 14:00 / 금산인삼관 1층 회의실



제41회 금산인삼축제가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지난 15일 금산인삼관 1층 회의실에서 제20회 이사회를 열고 내년 금산인삼축제 개최시기 결정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최일은 추석을 기점으로 한 연휴 일정과 가을 날씨, 인삼수확시기, 주민참여, 타 축제 개최 시기 등 내·외부적 요소들을 고심한 끝에 정해졌다.

특히, 내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금산군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체육대회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총 6일의 휴일을 축제 기간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인삼판매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축제 개최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행사 밀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단의 내년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축제사업으로는 △제41회 금산인삼축제 △제3회 금산 삼계탕축제 △2023 비단고을 산꽃축제 △읍·면 화합의 날 △뉴 미디어 홍보 △축제·이벤트 경영사 자격 취득반 △축제 빅데이터 사업 등 7개 사업

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에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관광두레PD 지원 △금산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 △해외 인플루언서 팸투어 △반려견 동반 관광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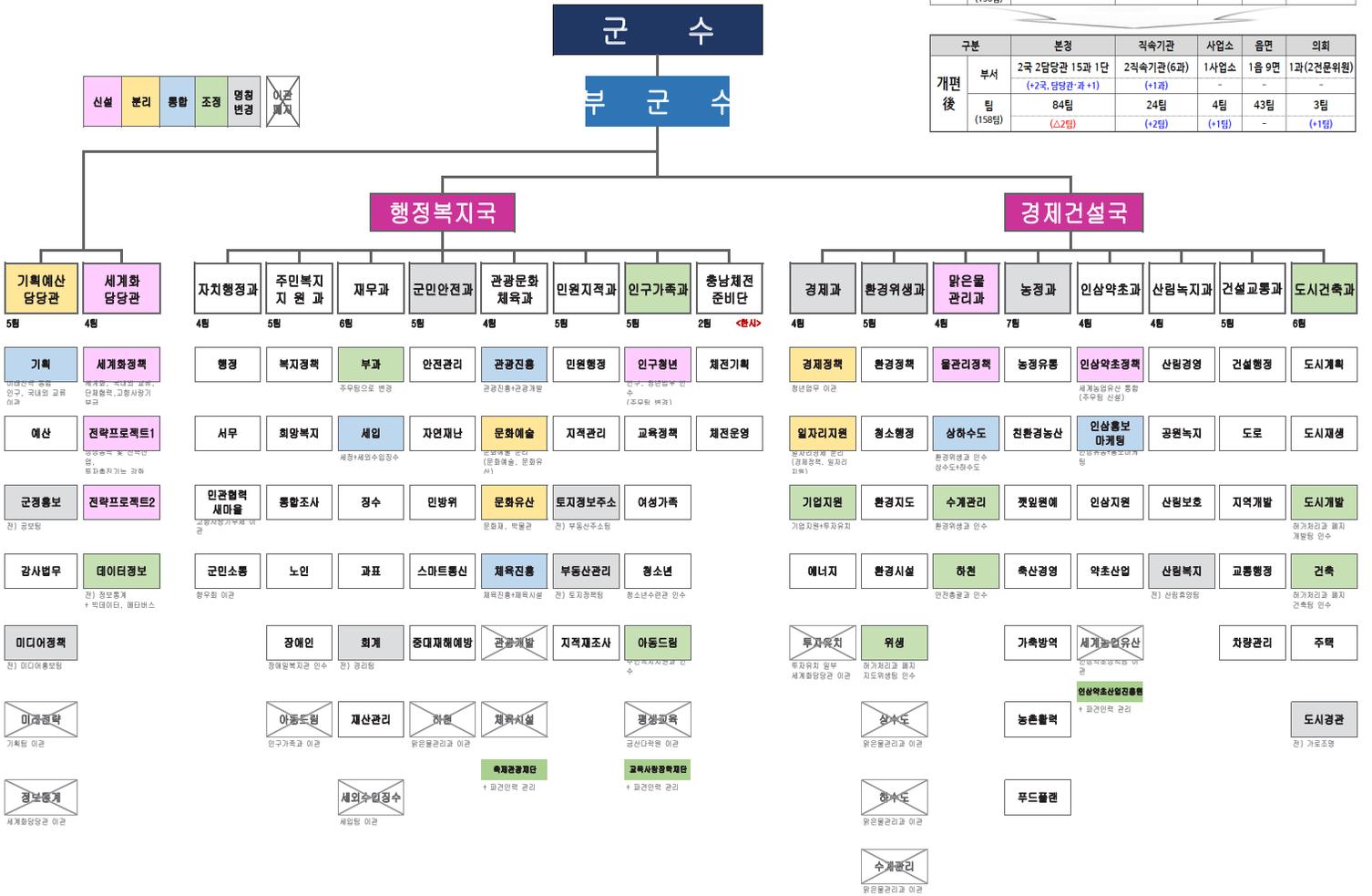
올해 열린 제40회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결과보고에서는 역대 최고 103만여 명의 관람객 방문, 1088억 원 경제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또한, 미래소비주역인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인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발굴, 인삼 활용 영역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확산,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인삼약초시장 활기 부여, 민·관의 남달랐던 전국적 홍보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올해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는 민·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금산인삼축제가 미래로 나아가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금산축제관광재단]

금산군, 민선8기 조직개편...2국 2담당관 1과 신설 부서간 업무 조정 및 명칭 변경으로 효율성 확보

민선8기 조직개편 기구표



금산군은 민선8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군은 조직 확대를 지양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조직 확대를 최소화하며 행정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2실, 14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10읍면에서 2국, 2담당관, 15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10읍면으로 개편한다.

특히,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맑은물관리과 등을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해 효율성을 확보했다.

또한, 세계화담당관 내 세계화정책팀, 전략프로젝트팀을 통해 세계화 및 단체협력, 교류, 미래 성장동력, 전략사업, 투자 촉진, 공공기관 유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서명에 처리하는 업무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군민안전과, 교육가족과→인구가족과, 지역경제과→경제과, 환경자원과→환경위생과, 농업정책실→농정과, 도시재생과→도시건축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군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민선8기 군정비전인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실현하고 군정 5대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며 “금산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한국인삼협회, '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 개최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박차



한국인삼협회는 지난 20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2주년 기념 '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용, 김종민, 안호영, 박형수, 유상범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KGC인삼공사의 후원을 받은 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2주년을 기념하고,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국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보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심포지엄의 주관 단체로서 농경 분야 최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삼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며 인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해당 주제 발표와 토론의 좌장으로서는 경주대학교 교수이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기조 발표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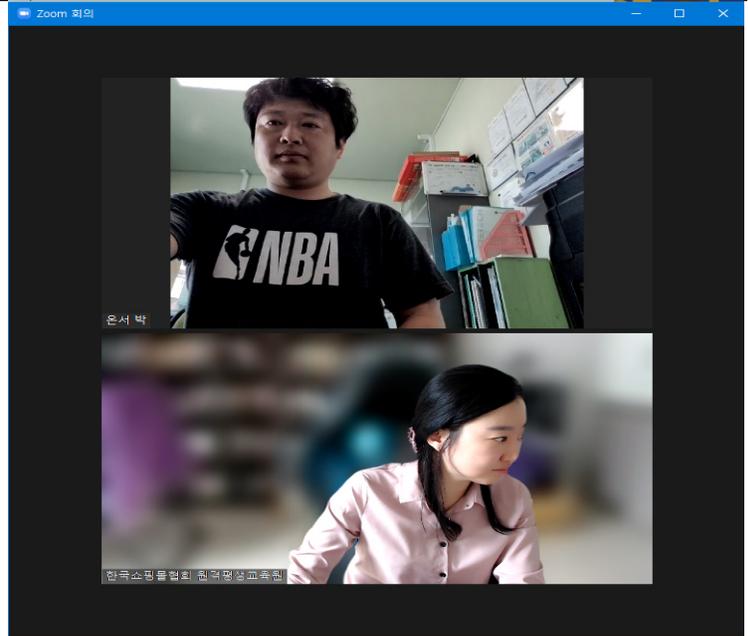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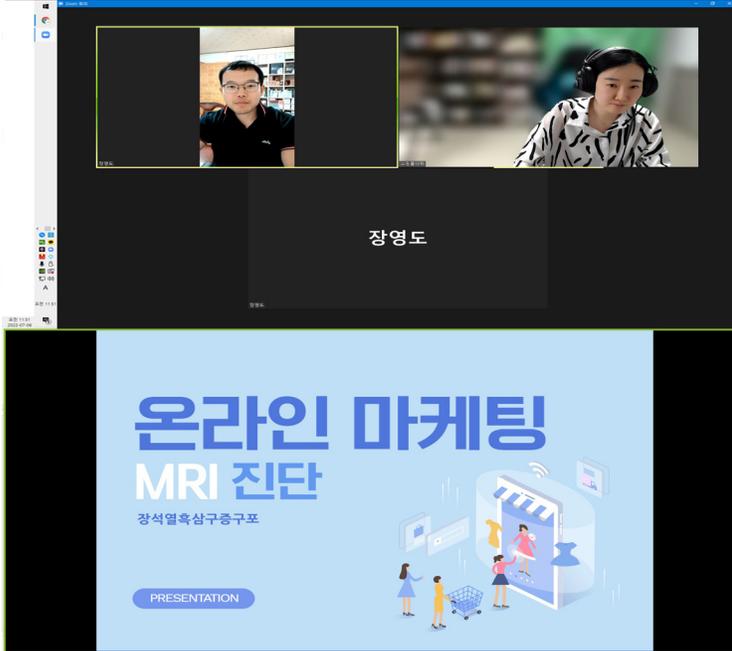
삼의 세계사'를 집필한 설혜심 연세대학교 교수의 '세계 속 인삼 문화와 역사' △홍태한 전북대학교 교수의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의의와 가치' △유학열 충남연구원 연구원의 '금산전통인삼농법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의의와 가치' △남수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원의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특성과 가치'를 발표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은 '공동체별 인삼문화 향유와 의미'라는 주제로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이야기'를 집필한 옥순중 연세대학교 교수 △김호경 KGC인삼공사 대외협력실장 △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박시영 금산문화의집 센터장 △이혜민 뉴욕대학교 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석하여 인삼 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인삼협회는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지난 9월에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등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비즈온에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비즈온에듀(대표 고아라)는 지난 11월 2022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소공인 온라인 활성화 지원 사업을 끝마쳤다고 1일 밝혔다. 비즈온에듀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 대상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전문 업체이다.

2022년 소공인 온라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업체들에 맞춰 마케팅 지원과 컨설팅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0개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됐다.

마케팅 지원 영역에는 온라인 광고,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제작, 체험단 마케팅 중 업체들 현황에 맞춰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시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향상이 날 수 있는 영역으로 선택적으로 지원됐다.

또한 컨설팅 영역은 업체가 마케팅 지원 사업 이후 자생력을 키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케팅과 관련된 방향으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10개 영역에서 약 250문항에 의해 정밀 진단하는 MRI진단을 토대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채널 입점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스마트스토어 등 업체의 현황에 맞춰서 입점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업체는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여 초반에 마케팅 지원을 통해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온라인 시장에 이미 진출한 업체들은 진출한 채널에서 매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온라인 광고 지원에 집중 지원했다”며, “광고 진행 시 성과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마케팅 지원 사업 이후에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할 수 있게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매 전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세페이지의 경우 입점몰 용 상세페이지 또는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퀄리티를 높였으며 초기 진입 업체들의 경우 온라인 후기가 없이는 매출이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아 제품을 체험하게 하고 후기를 생성시키는 체험단 마케팅을 연계해서 지원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 또한 1~2회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10회까지 지원하여 추후 업체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어 진행하여 브랜딩을 할 수 있게 했다.

비즈온에듀 고아라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온라인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업체들은 마케팅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미 진입한 업체들의 경우 한단계 더 도약하여 실제 작년 대비 매출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소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6조 규모 넘어서... 전년比 8% 성장 4년간 전국 5,000가구 패널 조사 결과, 올해 6조 1429억 원 규모 형성 구매 경험률 82.6%, 판매량은 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오메가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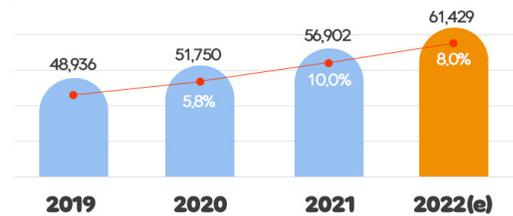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22 건강기능식품 시장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매년 확장을 거듭하며

2022년 6조 원 규모 달성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8%, 4년 만에 약 25% 성장
#코로나 장기 유행 #건강 중시 트렌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외연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2022년 국내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시장 규모는 6조 142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5조 6902억 원) 대비 8% 성장한 수치다.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 장기 유행과 전 연령에 걸친 건강 중시 트렌드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왔다. 지난 19년 4조 8천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약 4년 만에 25% 가까이 커졌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자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 구매 경험률은 82.6%(전년 대비 ▲0.7%)으로 측정됐으며, 2021년부터 나타난 소비력(평균 구매액) 강화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지며 가구당 연간 약 35만 8천

2022 건기식 직접 구매 & 선물 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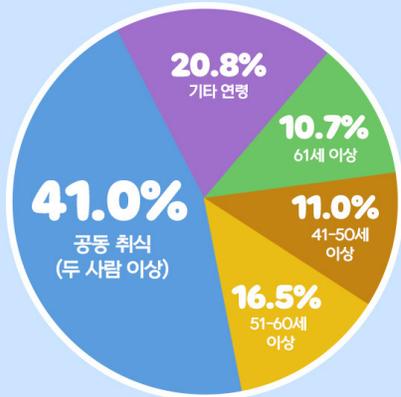
직접 구매 경향 ↑

직접 구매 비중
71.1%

선물 비중
28.9%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흐름이
영향을 끼침

건강기능식품 취식 연령별 비중



50세 이상 개인 취식 시장이 꾸준히 강화됨

'액티브 시니어' 시장 중요



원을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직접 구매 및 선물 시장으로 구분했을 때 각 비중은 71.1%, 28.9%로 집계됐다. 작년 위드 코로나로 잠시 반등했던 선물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며, 올해는 선물보다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건강기능식품 취식 연령의 경우, 온 가족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에 맞춰 관리하는 추세를 반영해 공동 취식과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동 지표

2022 구매 경험률

82.6% (100가구 당)



10가구 중 8가구

일 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 구매

2022 평균 구매액

357,919원



2021년부터 나타난 소비자 강화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짐

개인 취식 시장이 균형 있게 성장했다. 특히 51-60세 이상(16.5%), 61세 이상(10.7%)의 비중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돼,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상위 기능성 원료를 살펴본 결과, 홍삼, 비타민(종합 및 단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 체지방감소제품, 단백질보충제, 당귀추출물, 콜라겐, 프로폴리스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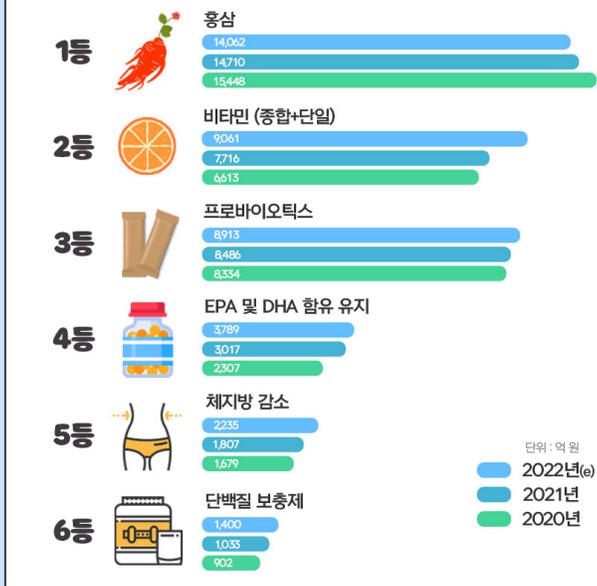
전년과 비교해 비타민과 오메가-3 시장의 비중이 커졌으며, 단백질 보충제 시장도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기타 시장(복합 제품 및 기능성 원료 시장)의 경우, 홍삼 시장에 준하는 1조 4천억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2022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 조사' 보고서에 수록됐다. 건기식협회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매년 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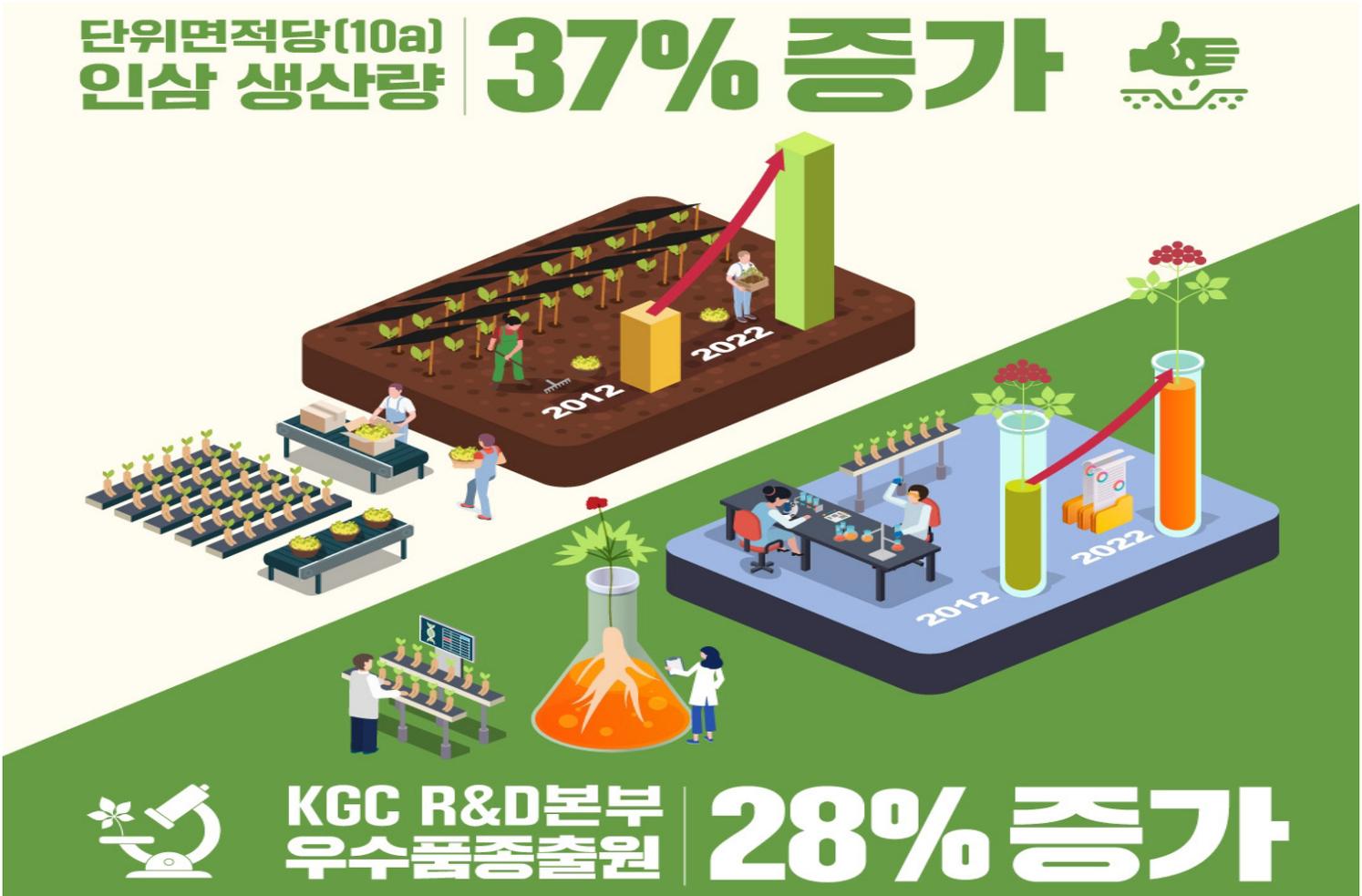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량 올해 최대... "10a당 780kg 수확"

단위면적당(10a)
인삼 생산량

37% 증가



KGC R&D본부
우수품종출원

28% 증가

정관장 계약재배 인삼 생산량이 올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KGC인삼공사는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6년근 인삼을 구매한 결과 평균 10아르(a)당 780kg을 수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10a당 인삼 생산량은 37% 늘었다.

올해 계약재배 인삼밭 면적은 774헥타르(ha)로 축구장 크기(0.7ha)의 약 1,100배에 달했다.

인삼 재배 지역은 철원, 양구, 해남 등 전국 72개 행정구역이고, 1700여 농가가 인삼을 수확했다.

올해는 강원도가 수확면적이 가장 큰 인삼 산지로 올라섰다. 지구 온난화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반음지성 고온지대에 잘 자라는 인삼 생육 특징과 맞아 떨어진 덕이다.

계약재배 인삼밭 중 가장 큰 곳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했다. 면적은 8.9ha로 축구장의 1.3배로 인삼이 심겨진 두둑의 길이만 5km에 달한다. 수확준비 기간만 15일, 380

여명이 준비했으며 인삼을 수확하는 기간만 5일이나 소요됐다.

KGC인삼공사는 올해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인삼 품질을 높인 것이 생산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품종 출원 누계 건수는 2012년 18건에서 올해 23건으로 28% 증가했다. 특히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전체 인삼 품종 40건 가운데 KGC인삼공사가 등록한 품종이 60%를 차지한다.

박종곤 KGC인삼공사 원료사업실장은 "정관장은 고품질의 인삼을 계약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최상의 품질이 담보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약농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근본부터 남다른 정관장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삼 기계 선별시스템 도입해야 선별 방식 간소화 및 시스템 도입해 품질 규격화 이뤄야 “정부·조합 등 나서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 필요”



인삼 기계 선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삼 선별 방식은 구식적인 뿐더러 기준도 하는 사람마다 제 각각인 상황이라 기계화를 통해 품질의 규격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삼 선별 과정은 뿌리·굵기·크기·모양 등 고려해야 하는 점이 상당수일 뿐만 아니라, 규격도 수십가지에 달해 기계를 통한 선별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구식적 인삼 선별 방식을 간소화하고 기계화를 통한 품질 규격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봉순 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과거 관습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인삼 규격방식은 생산자·소비자 등 모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인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별과정 내 기계화 보급을 통해 인삼 선별을 규격화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강화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한 농민은 “인삼 선별 기준도 엉망 하는 사람 마다도 제 각각인

실정이다”며 “대체 기준이 무슨 필요한건지 선별작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선 정부나 농협에서 선별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며 “사람손으로 1차 선별한 후에 선별기로 크기, 무게 등을 선별하는것도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금산의 한 농민은 “인삼 선별 기계화 등 선별 방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관습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정부, 조합, 인삼조직 등이 나서 이를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병옥 고려인삼포럼 회장은 “인삼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매 거래 제도 도입과 수삼 선별 기계화를 도입해 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의 규격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인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산업주체의 참여·소통으로 정책 확산 및 시너지효과를 낼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예산업신문]

인삼공사 개발 ‘전립선 건강원료’ 식약처서 기능성 인정 -인체적용 시험 통해 전립선 건강 효과 확인 특허출원 완료... 내년에 원료 적용제품 출시하기로



KGC인삼공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홍삼오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전임상시험 및 인체적용시험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식약처로부터 개별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원료로, 해당 소재에 대한 독점적 제조-판매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다.

KGC인삼공사는 2018년부터 5년간의 노력으로 연구한 결과 해당 홍삼오일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는 해당 원료를 바탕으로 23년도 내에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 중년남성의 절반가량이 앓고 있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에 의한 호르몬과 성장인자

등의 불균형으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고 증상이 심해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GC인삼공사는 전립선비대유도모델을 활용한 전임상시험에서 홍삼오일의 섭취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성장인자 등을 조절하여 전립선의 무게와 두께를 감소시킴을 규명했다.

또한 전립선비대 증상을 가지는 국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전립선비대증의 증상 및 심각도를 평가하는 국제전립선증상점수와 전립선 크기의 예측인자로 활용되는 전립선특이항원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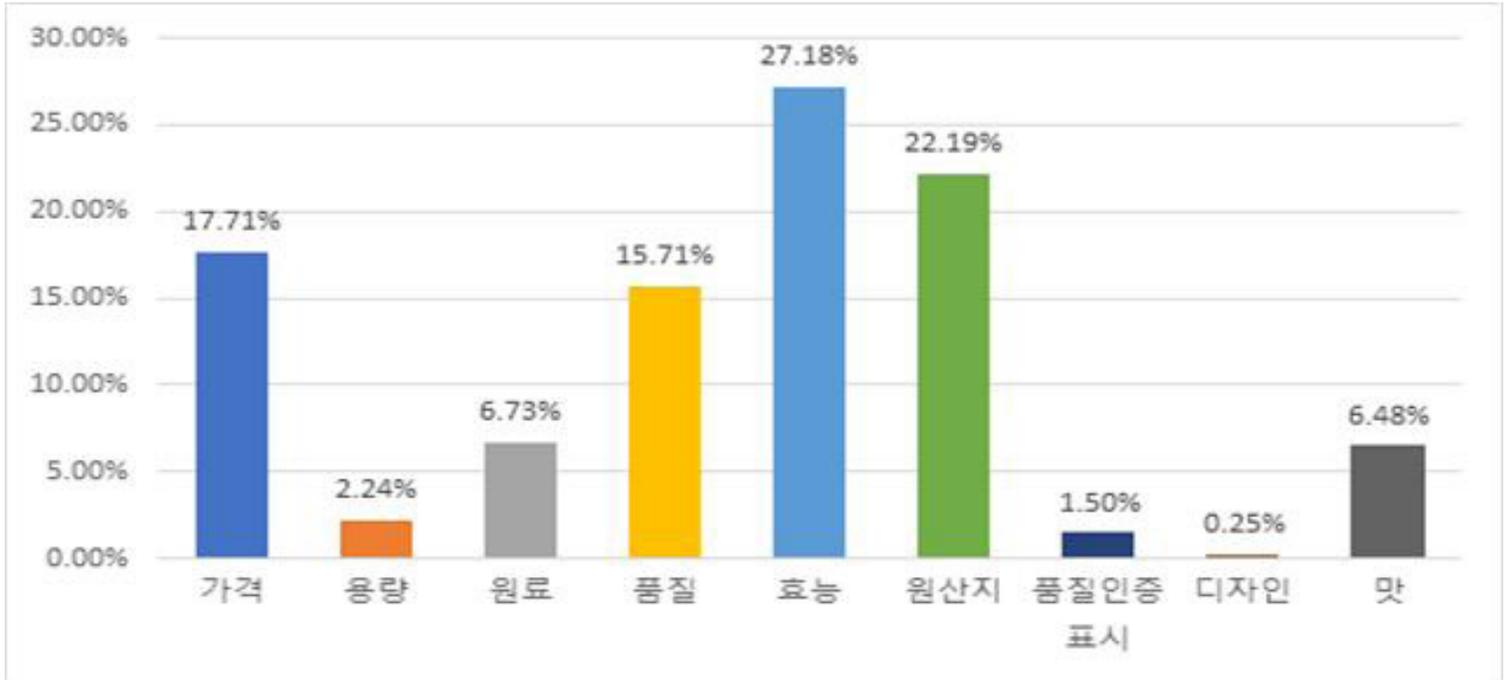
이와 관련 박만수 공사 R&D본부장은 “식약처에서 개별인정 기능성을 인정받은 홍삼오일은 KGC인삼공사가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정관장 홍삼에서 순수하게 추출-정제한 것으로, KGC인삼공사의 연구개발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서 국내외 다양한 건강소재를 개발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이번 홍삼오일의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외에도 홍삼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홍삼의 기능성(혈행개선, 기억력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 건강)에 대해 자체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 홍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 홍삼산업 발전과 인삼종주국 위상 강화에 일조해왔다.

[넥스트데일리]

국내 소비자 약용작물 “효능·원산지” 중심으로 구매 농진청,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용작물의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약용작물 이용 경험과 소비 경향을 파악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약용작물 소재를 개발하고자 기획했다.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 집단(패널) 가운데 임의로 뽑은 698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약용작물 섭취 경험은 40~60대는 60% 이상, 20~30대는 40% 정도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에 관심이 높아* 약용작물 섭취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관심도) 20대(20%) ≒ 30대(21.9) < 40대(30.37) < 50대(45) ≒ 60대 이상(46.11)

(약용 섭취 경험) 20대(40%) < 30대(47.45) < 50대(60) ≒ 40대(61.26) ≒ 60대(61.67)

약용작물 이용 형태는 ‘식재료’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기능식품’ 26.9%, ‘차·음료’ 26.4%, ‘생약용’ 4.4%로 나타났다. 30대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40~60대 소비자는 찜, 생채 등 ‘식재료’ 이용 비중이 높았다.

선호하는 약용작물 식품 형태는 ‘액상 음료’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캡슐(16.6%)’, ‘가루(분말)·알갱이(과립)(16.6%)’, ‘식물체(15.7%)’, ‘티백(4.6%)’, ‘주류(1.85%)’ 순으로 조사됐다.

약용작물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식품의 효능’ 27.1%, ‘원산지’ 22.1%, ‘가격’ 17.7%, ‘품질’ 15.7% 순으로, 가격이나 품질보다 효능과 원산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자생하고 재배하는 식물에 대한 선호 비중이 89.5%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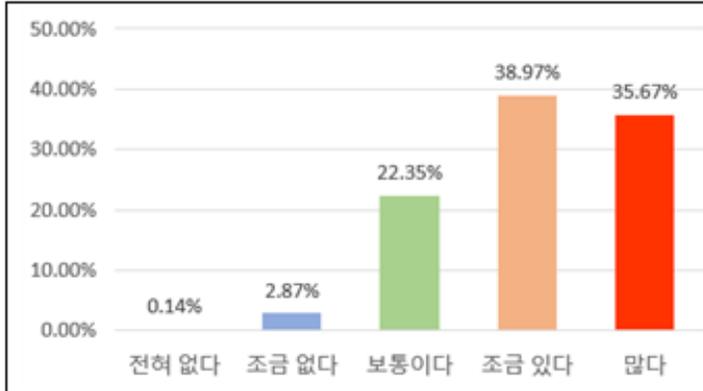
약용식품 섭취로 얻는 기대 효능으로는 ‘면역력 증진’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혈액 순환(27.1%)’, ‘노화 예방(4.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약용작물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잘 챙겨 먹지 않아서(27.6%)’, ‘몸에 맞는 약용식품을 찾기 어려워서(18.8%)’, ‘품질(효과, 효능)을 신뢰할 수 없어서(16.8%)’ 등의 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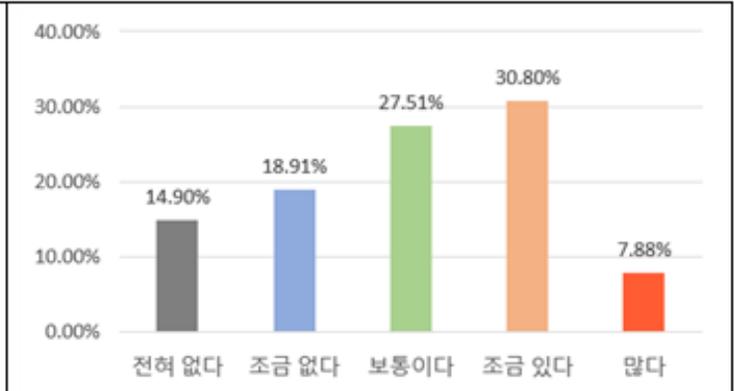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특용·약용작물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에 쏠리는 소비자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소비자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나이, 성

별에 맞춘 다양한 약용작물 활용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건강 및 약용작물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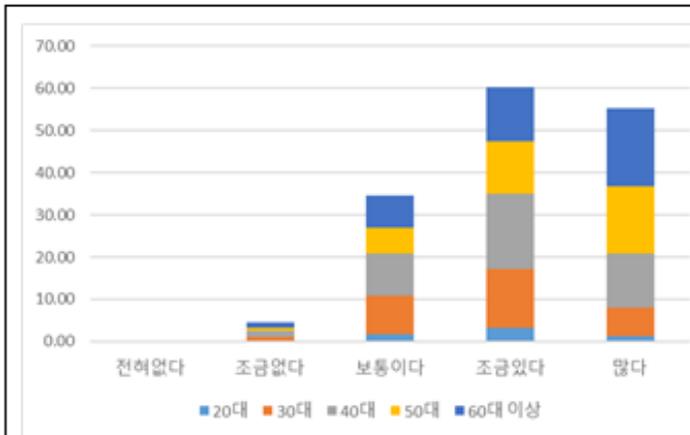


건강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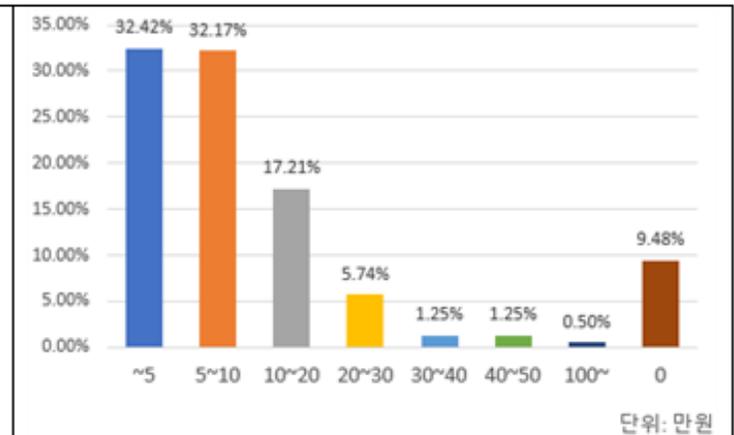


약용 식물에 대한 관심·인지 여부(%)

○ 약용작물 섭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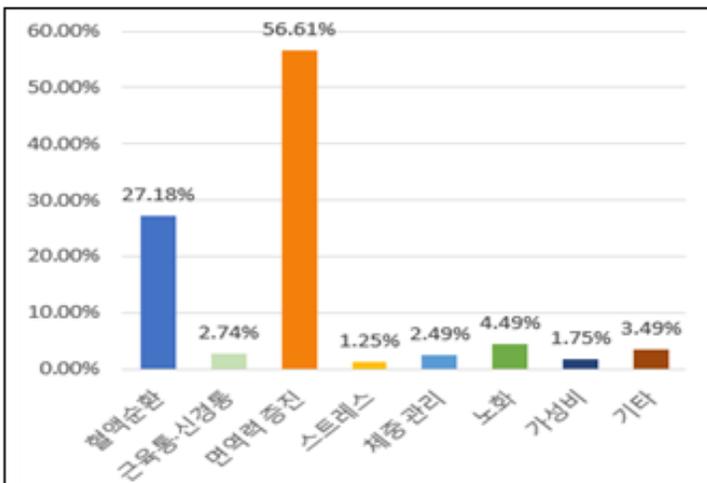


약용식물 섭취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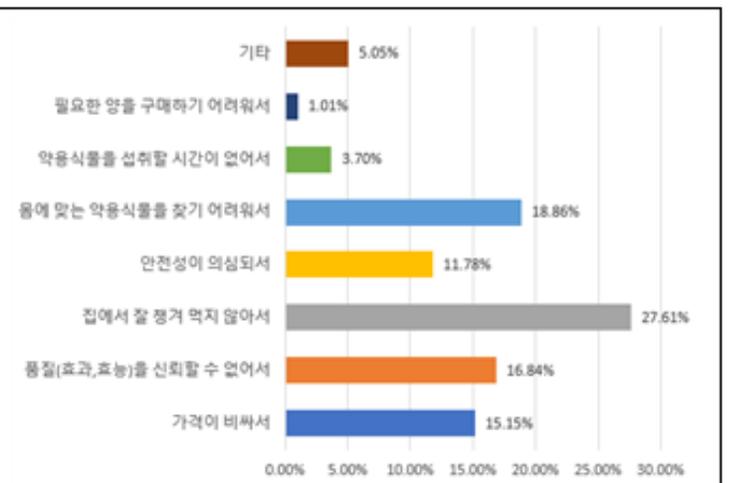


2021년 약용식물 구매 비용(%)
단위: 만원

○ 약용작물 섭취하는/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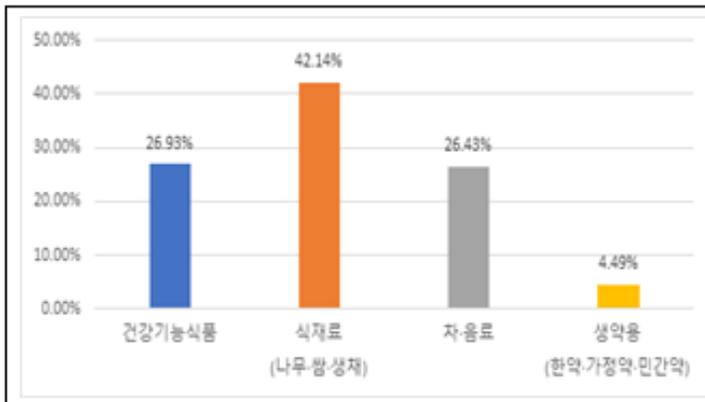


섭취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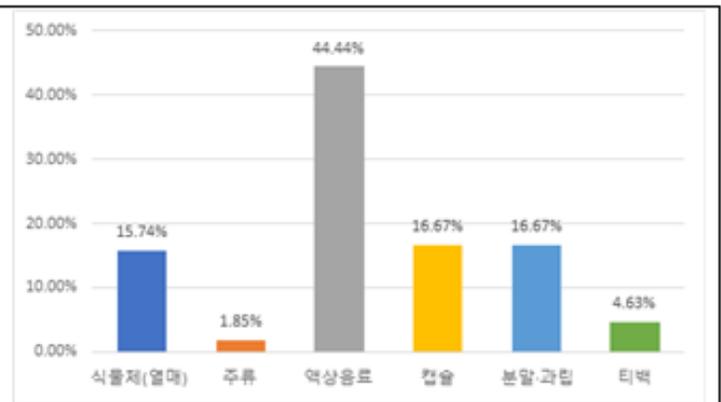


섭취하지 않는 이유(%)

○ 약용작물 이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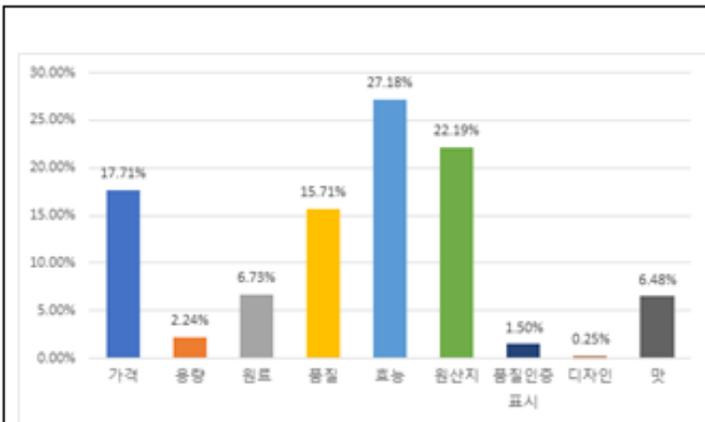


이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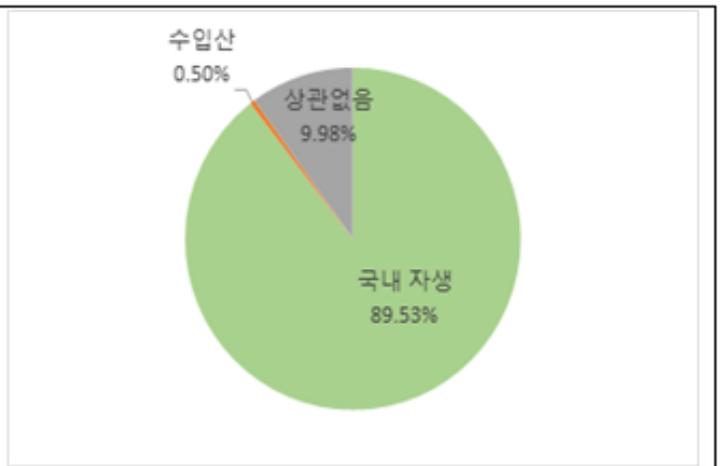


선호 제형(%)

○ 약용작물 구매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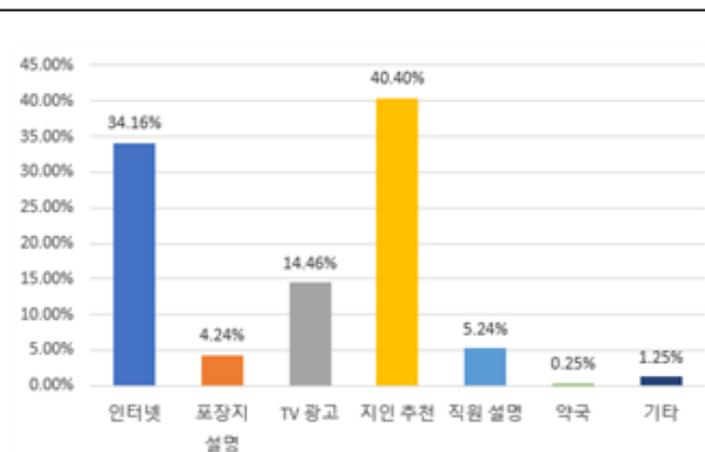


구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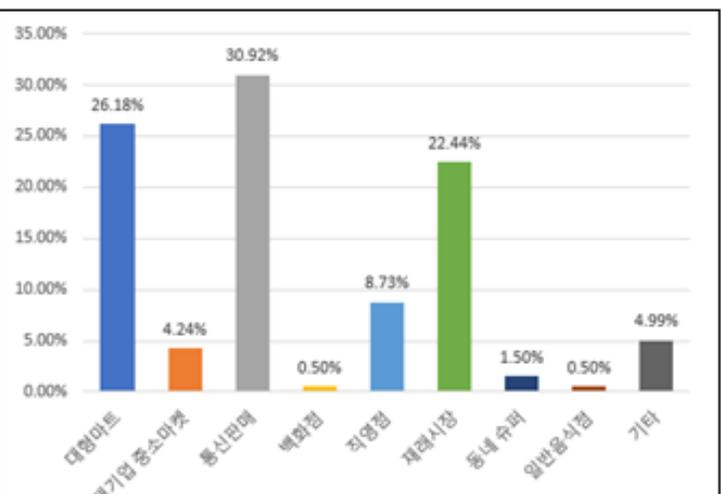


선호 원산지(%)

○ 구매 정보 습득경로



정보 습득경로(%)



구입 장소(%)

북한 내각 농업위원회, 8년 만에 개성시 인삼 생산 실태 파악 나서 10일부터 보름 간의 일정으로 검열 돌입... 경작지 면적 대 계획 수행량 따지는데 집중

내각 농업위원회 검열조가 올해 인삼 생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보름의 일정을 잡고 인삼 재배지인 개성시에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시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내각 농업위원회는 올해 인삼 생산 실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걸려있는 여러 가지 고리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성시의 인삼농장들을 돌아보며 장부 검열 등 여러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인삼 생산 실태 검열은 실제 국가의 인삼 재배 실태를 요해(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소를 받아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농업위원회는 이번 검열이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책임감 있는 실무일꾼들로 검열조를 구성해 실태를 세심히 평가하고 조치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농업위원회는 인삼 생산 실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검열하고 평가할 부분을 정했는데, 우선 실경작지 평수와 그에 따른 인삼 생산 실적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식통은 “개성시를 비롯한 주변 군들이나 개인 주민들 속에서 불법적으로 인삼재배 농작지를 늘리거나 재배한 흔적들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일꾼들이 이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실무자들은 8년 전부터 해마다 불어난 인삼농장들의 농작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으며, 그에 따른 생산량을 국가에 속인 것은 없는지 면적에 따른 계획 수행량을 과학적으로 밝히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농장들의 구구한 입장보



개성 고려인삼 제품들. /사진=노동신문·뉴스1

다도 국가적 입장에서 따져보고 있어 농장일꾼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농장들에서는 검열조가 인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영농자재와 농장 살림,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국정 가격이 아닌 야매 값(시장가격)으로 비싸게 되고 있는 조건들은 무시하고 경작지 면적 대 국가계획 수행량만 따지고 있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갑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개성시의 인삼농장 일꾼들은 이번 검열에서 국가가 면적 대 계획량, 실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삼농장들이 사철 얼마나 어렵게 인삼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걸린 고리들을 해결해주는 데 검열의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위원회 검열조는 주민 개개인이 불법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현상이 있는지도 돌아보고 있는데, 개성시에서는 제정된 땅에서만 인삼이 재배되고 있어 이 부분은 딱히 검열에 걸릴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대만세관, 농약함유 수입 수삼 적발

지난해 한국 수삼 5건 적발



대만 식품의약국은 지난 11월 22일 7가지 살충제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한국에서 수입된 수삼을 세관에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수입된 325kg의 수삼은 지난 10월 18일 검체검사에서 boscalid 0.05ppm과 0.02ppm~0.07ppm의 fluopicolide, propamocarb hydrochloride, pyraclostrobin, fluazinam, penthiopyrad, tebuconazole 등이 발견됐다고 식품의약국은 밝혔다.

한국의 D사가 공급한 품목은 신베이시 용허구에 위치한 Ding Yung International사에 의해 대만으로 수입됐다.

식품의약국 북부지점의 Chen Ching-yu(陳慶裕) 과장은 검출된 5가지 농약(boscalid, fluopicolide, propamocarb hydrochloride, pyraclostrobin 및 tebuconazole)이 모두 허용 한도인 0.01ppm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Fluazinam과 penthiopyrad는 인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Chen은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된 수삼 총 5건이 안전검사에 불합격됐으며 이 중 3건이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 결과 식품의약국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인삼에 대한 무작위 테스트를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최근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다른 9개 수입 품목의 목록을 화요일 발표한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원산지 국가로 반환되거나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세관에서 거부 및 폐기 또는 반환된 기타 품목에는 베트남산 생선 소스 780kg, 중국산 냉동 밤 10,080kg, 인도산 향신료 큐민 20kg이 포함되어 있다고 FDA는 보고했다.

[홍보마케팅팀]

“제품원료용 홍삼 시장격리 서둘러야” 고려인삼포럼 동계학술대회



국내 인삼산업이 위축된 가운데 수급과 경작안정을 위해서는 재고량이 많은 제품원료용 홍삼의 시장격리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제품원료용 홍삼은 천·지·양삼과 같이 뿌리 형태로 유통되지 않고 홍삼엑기스 등의 가공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지칭한다. 지난 14일 열린 (사)고려인삼포럼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황광보 (사)고려인삼연합회 회장(우신산업 대표)은 “국내 인삼업계의 재고자산은 지난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제품원료용 파삼 가격이 1kg 기준 9000원 이하로 하락해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가격과 경작안정을 위해서는 원료용 홍삼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촉구했다. 파삼 가격은 코로나 이전 2만4000원에서 2021년 1만1000원 등 하락을 거듭했다. 이는 콜로나 펜데믹으로 소비가 위축된데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에 따른 거래 중단 등이 원인이다. 황 회장은 “재고자산 가운데 가공용 홍삼은 4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수매자금 금리인 1.5% 기준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인삼농협 창고 등에 격리하면 심리적 안정이 확산될 것”이라며 “홍콩, 대만,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의 국제인증 임상시험을 비롯한 수출제품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원료삼 안정을 위한 농약판매이력제 및 채굴 전 안전성검사, 인삼산업 전반을 컨트롤하는 국가 단위 (가칭)인삼산업진흥협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황 회장은 특히 “메가 FTA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경우 누적원산지 규정에 따라 저가 수입 인삼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국산’ 표시가 가능해 인삼산업 붕괴를 위협할 수 있다”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도 관세가 거론되면 인삼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형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인삼산업 정책방향’에서 흑삼성분 세부 기준 마련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기준은 Rg3

0.1% 이상, Rk1+Rg5의 합계 0.2% 이상이다. 제조방법의 건조 온도는 60℃ 이하다. 홍삼·백삼·태극삼·흑삼의 등급 표시방법도 바뀐다. 기존에는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을 같이 표시했으나 개정되면 병기하거나 천·지·양삼 또는 1·2·3등을 단독 표시할 수 있다. 제조·검사기준은 태극삼의 경우 기존 열수처리 장치에서 물로 익힘이 ‘물 또는 수증기로 익힘’으로 완화된다. 생건삼은 ‘표피·머리의 모양이 피부본삼과 유사한 것’으로 바뀐다. 기존 ‘몸통의 직경이 10mm 미만이며, 개체당 무게가 6g 미만인 것’은 삭제된다. 절편삼 기준은 아예 없어진다. 절편백삼 제조방식은 기존 백삼본삼 이외에 ‘수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건조’가 추가된다. 불합격품 수거·폐기의 경우 기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에 ‘중금속·벤조피렌 기준 초과’를 보완했다. 자체검사 업체 행정처분도 ‘기존 1년간 같은 위반행위 지속 시 가중 처벌’을 ‘2년 간’으로 기준을 높였다. 개정안은 내년 1월까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공포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병옥 회장(세명대 교수)이 연임돼 2024년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한국농어민신문]

20

2

3



HAPPY NEW YEAR!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제10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 지방의회 봉사 부문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이 '제10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에서 수상했다.
 최명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정치·지방자치 분야의 지방의회 봉사 부문에서 지식경영대상을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인적자원개발원과 정부 산하단체 20여 곳이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경영에 공헌한

정치인, 경영인, 연예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 의원은 지역의 갈등과 어려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명수 의원은 "기초의원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거리에서 일하는 정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일선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긍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 월영산 출렁다리 통제 안내 ★★

동결로 인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월영산 출렁다리를 통제합니다.
 산행 또한 위험하오니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미국 아마존에 '농협 브랜드샵' 공식 오픈... 130개 국산 가공식품 판매



농협 계열사인 NH농협무역이 7일 미국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해 '농협브랜드샵'을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NH농협무역은 공식 오픈에 앞서 11월 21일부터 아마존에 우수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6일까지 누적 접속자 수가 1만 35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농협브랜드샵에서는 한국 대표 전통식품인 된장·고추장 등 장류부터 인삼·홍삼 가공제품까지 28개 지역농협이 생산한 국산 우수가공제품 130여 개를 판매한다.

아마존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농협 가공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아마존 물류센터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신속하게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이번 브랜드샵 운영실적을 토대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농협의 우수 신상품을 발굴해 수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NH농협무역 지준섭 대표이사는 “아마존 농협브랜드샵을 통해 우리 먹거리의 우수성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산 농산물과 농협 가공제품이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별기고]전북도, 부가가치 높은 약용작물 산업 육성 필요 최소라(전라북도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장)

'전라북도 약용작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단계 약용작물산업 육성 계획이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 수립이 완료된다. 1단계 계획이 2017년에 수립된 후 5년만으로, 2단계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 세부전략, 투자계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약용작물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2020년 전라북도의 약용작물 농가수는 6,229호(전국 대비 20%), 재배면적은 1,195ha(11%), 생산량은 6,313톤(11%)이다. 생산량 측면에서 전국 순위를 보면 경북 1위, 강원 2위, 전북이 3위이다. 전북에서 생산량이 높은 약용작물은 인삼(전국 대비 22%), 복분자(80%), 잔대(사삼)(43%), 천마(69%), 작약(17%), 오미자(13%)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삼은 충북과 생산량이 비슷하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산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현재는 진안에서 홍삼으로 특화시켜 개발 중이며, 오미자의 경우에는 장수지역이 최초 재배지였으나 문경 오미자에 선두를 놓쳐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약용작물의 대량 소비처인 기능성 식품, 천연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비료농약, 사료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전북은 다소 낮은 위치를 보인다. 현재까지 도내 연구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 개별인정형 원료 인증은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1건 밖에 되지 않으며, 한약재 GMP제조업체(우수 농산물 품질관리업체) 역시 전국 179업체 중 전북 8업체로 수적 열세이다.

이번 2단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대표 약용작물 육성을 위해서는 탄탄한 생산 및 가공기반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생산면에서 약용작물 원료 표준화,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우수 품종 육성, 시설 현대화 등이, 가공면에서는 수확 후 관리기술, 고부가 가공품 개발, 효능 검증,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천연물 식의약 소재 개발, 유통·홍보 마케팅 등에 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행히 진안 홍삼이나 무주(천마), 임실(영경귀), 고창(복분자), 정읍(지황), 익산(감초) 등의 경우에는 중앙,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천마의 경우 십여년전부터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우량 자마 생산기술, 비가림단지재배, 스마트팜 연중 생산기술 등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였다. 또한 도와 무주군에서도



2010년부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 재배, 가공 및 유통시설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 건강기능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과 비가림재배 및 스마트팜 시설 등이 구축된다면 무주(천마)가 지역특화작목으로 명성을 얻지 않을까 기대한다.

약용작물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식품산업 뿐 아니라 기능성 식품, 의약품 산업, 치유농업 등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전북은 동부권 산간지부터 중산간지, 평야지까지 다양한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농생명산업과 관련된 중앙, 지자체, 연구소 및 지원센터 등이 46개소가 집적되어 있어 산업화에 매우 유리하다.

약용작물 산업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약재는 약 3,000종이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약용작물은 300종이 있다. 약용작물은 식품, 한약재, 색소, 화장품 등 기능성 제품원료로 외연 확대의 폭이 매우 넓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은 더덕, 오미자, 복분자 등과 같은 상위 6개 품목이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약용작물이 무궁무진하다.

전국은 지금 약용작물 원료 생산단지 구축 중이다. 충북(감초, 병풀), 경남(감국), 경북(작약), 전남(황금) 등이 그러하다. 우리 전북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약용작물 산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번에 수립된 2단계 약용작물 산업 육성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한 때이다.

[새 전북신문]

흑삼과 백삼 농축액 기술상용화에 성공 [2022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대동고려삼



대동고려삼(대표 최성근)은 2002년 설립 후 인삼과 인삼제품류를 원료부터 가공,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 설비와 공정기술을 갖춘 홍삼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판형증발농축기술을 공정에 적용하여 흑삼 및 백삼의 농축액을 생산하는 기술상용화에 성공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인삼(백삼, 홍삼, 흑삼)을 원료로 한 농축액은 인삼사포닌(진세노사이드), 아미노산, 아미노당, 산성다당체 등 다양한 유효성분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지표성분이 진세노사이드이다. 이 중 흑삼에 높은 함량을 보이는 Rg3를 비롯한 프로사

포게닌 진세노사이드는 항암효능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 활성이 보고되어 있다.

대동고려삼은 흑삼 및 흑삼농축액의 제조 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연속식증포기술’과 ‘판형증발농축기술’을 접목시켜 흑삼 및 흑삼 농축액 내 프로사포게닌 성분의 함량 증대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핵심기술인 연속식증포기술과 판형증발농축기술은 홍삼 및 홍삼농축액 제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효성분의 손실을 막고 생산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한국일보]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농업유산 금산인삼

혈신근검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광통이크래 G-마크로 인증을 확인하세요

금산군 금산군수 봉정인사

OR코드로 제품정보 및 인증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도전…미래를 향한 역동적 군정 구현’ 금산군, 2022년 금산군정 10대뉴스 선정



올해의 금산군정 10대 뉴스가 선정 발표됐다.

1.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민선8기 출범

과감한 도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세계 속에 빛나는 금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진취적인 군정비전 아래 민선8기가 출범했다.

2. 역대 최다 72개 1527억 원 공모사업 선정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2건 1527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비해 104억 원 증가한 액수이며, 금산군 공모사업 예산확보 역대 최대의 성과이다.

3. 금산인삼축제 관광객 103만명 돌파, 세계축제 기반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된 제40회 금산인삼축제는 관광객 103만 명을 돌파하며 가장 성공한 인삼축제로 기록됐다.

인삼요리 활용영역 확대, 인삼약초시장으로 축제장 확대,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 도입 등 참신한 기획과 과감한 운영을 통해 세계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키웠다.

4. 깻잎 사상 최고 연 매출 635억 원 달성

군의 대표 효자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은 깻잎의 지난해 연 매출이 사상 최고 액수인 635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609억 원 대비 4.1% 증가폭이다.

군은 올해 11월 스마트APC(농산물유통센터) 준공 등을 통해 깻잎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매출 통계는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5.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로 지리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남부권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6. 금산군보건소 신축이전 확정

금산군보건소는 202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205억 원을 확보하여 (구)을지병원 일원에 신축이전이 확정되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 중인 행복드림센터와의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최상위급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다가섰다.

7. 금산인삼, 중동지역 첫 진출 115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군은 지난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제과전시회(2022 ISM Middle East Dubai)에 참가해 115만 달러의 수출성적을 얻었다. 두바이는 중동지역 무역 중심지이며 이 행사는 중동지역 최대규모의 산업 전시회로 꼽힌다.

8. 금산군 예산 7270억 원 편성

2023년 본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대규모 사업의 연차별 자원 배분을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기했다. 총예산액은 올해보다 20.1% 늘었다.

9. 금산군 행정조직 개편

그동안 관심사로 떠올랐던 조직개편 문제가 일단락됐다. 행정의 전문성 및 기획력 강화를 위해 2국, 2담당관 체제로 개편하고, 세계화담당관, 맑은물관리과를 신설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해 효율성을 확보했다.

10.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준공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금산읍 신대리 54-4번지에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조성됐다. 이 시설의 준공으로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비용(연 1억 2000만 원 가량) 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인삼가격정보(자료: 금산군청)

상기 인삼류 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삼의 전반적 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삼류 가격동향(2022. 12. 22.)

4근 곡삼	30편		37,200원	50편		36,000원	75편		34,200원
		전시세	37,200원		전시세	36,000원		전시세	34,200원
		등락	0원		등락	0		등락	0
		전년동기가격	38,400원		전년동기가격	37,200원		전년동기가격	34,800원

4근 직삼	15편		43,200원	25편		39,600원
		전시세	43,200원		전시세	39,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3,200원		전년동기가격	40,800원

5근 직삼	15편		45,600원	25편		43,200원
		전시세	45,600원		전시세	43,2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5,600원		전년동기가격	42,000원

6근 직삼	15편		50,400원	25편		45,600원
		전시세	50,400원		전시세	45,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50,400원		전년동기가격	45,600원

미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건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삼(수삼)	10뿌리		29,000원	20뿌리		21,000원	30뿌리		19,000원
		전시세	28,000원		전시세	21,000원		전시세	20,000원
		등락	1,000원		등락	0원		등락	-1,000원
		전년동기가격	32,000원		전년동기가격	23,000원		전년동기가격	22,000원

	40뿌리		19,000원	50뿌리		19,000원	70뿌리		20,000원
		전시세	20,000원		전시세	20,000원		전시세	20,000원
		등락	-1,000원		등락	-1,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2,000원		전년동기가격	22,000원		전년동기가격	23,000원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금홍마크와 G-마크로 정품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壬寅年 送年辭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용맹하고 기운찬 ‘검은 호랑이의 해’를 달려 온 임인년(壬寅年) 한 해도 이제 보람과 한권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비전 아래 행복한 금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올 한해, 참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지난 일상들이 이제야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도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금산군수 박범인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 커가는 행복’을 목표로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 5만여 금산군민과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역적 조건을 활용하여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금산군에 유치하였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충청남도 남부권에 위치하여 충청남도청에서 가장 먼 거리의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인근 논산시와 계룡시와의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희망의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중요한 화두인 인구 감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아 2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 간 현장에서 개최하지 못하였던 제40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인삼축제 사상 처음으로 관광객 103만 명을 돌파하면서 1,088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두고 또한 국제인삼교역전을 통하여 1천만 불의 교역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금산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외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과감히 도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총 72개 사업이 선정되어 1,527억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만인산농협에 전국최초의 거점 스마트APC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금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 대응과 수급 조절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금산·추부 깎았은 연 매출 3년 연속 600억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최대 실적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하여 민선8기 금산 군정이 금산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할 새해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에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과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 군정이라는 5대 중점전략을 토대로 금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특히 인화(人和)를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활기찬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 이상으로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군정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금산군수 박 범 인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발행일 2022. 12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전화 041-750-1672

팩스 041-750-1679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